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올해 정부 추경 514억원 확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현안 직결 총 12건
“국회 직접 발로 뛰며 챙긴 결과… 도민 체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내 주요 현안과 직결된 사업에 총 12건, 514억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정부추경이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전북에 필요한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산발 피해 복구, 재난예방, 통상 리스크 대응, AI 및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추경안에 12조2,000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최종 13조8,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성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400여억원(전년도 국비 배분비율에 따른 추정치)이 반영되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전통시장 유입 촉진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3월 공모 선정된 △완주 일반산업단지 문화선도산업 랜드마크사업 6억5,000만 원이 반영돼,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산단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며 △무가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지원 예산 35억원을 확보

하여 지역농가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김제와 장수의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이 각각 19억원과 15억원으로 증액됐고, △산림 인접 마을의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3억원이 신규 반영되어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이 강화됐다.

또한 익산시, 임실군 및 완주군을 중심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42억원)되면서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상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2억 원 예산도 반영됐다.

전북자치도는 이 외에도, 향후 부처풀예산 배분 및 공모사업 대응 등에 따라 확보액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 하나하나를 챙긴 결과”라며 “직접 국회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룬 성과로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봉축법요식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일 김제 모악산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에서 열린 불

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새만금신항 · 군산항 ‘새만금항’ 으로 통합… 운영방식은 ‘원포트’

군산시 “원포트 환영” · 김제시 “한 명칭 아래 두개로 운영” 지자체별 해석 분분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이 새만금항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운영방식은 ‘원포트’이다.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 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항만 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

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공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항 신항’의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하위 항만인 소위 ‘원포트’(One-Port)

무역항으로,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 외에 별도의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투포트’(Two-Port) 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해수부는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운영하지만 군산시가 요구한 군산항의 하위 항만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를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는 해석이 분분하다.

군산시는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

회에서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군산시 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원포트 지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제시는 “새만금항으로 명칭이 되면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이 한 명칭 아래 두개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항구 코드가 군산항과 신항만을 합친 코드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국내 14개 무역항 중 군산항의 명칭은 사라진다”고 ‘투포트’ 운영으로 해석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자치도 ‘어린이날 대축제’ 성료

꿈 꾸GO… 함께 즐기GO…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서 개최… 2000여명 북적

7개 테마 · 75개 체험존 마련… 놀이 · 교육 골고루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0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해 창의와 체험,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축제는 어린이 K-POP 댄스 공연으로 문을 열고,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의 기념사,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의 축사에 이어 어린이 20명과 함께 한 기념 퍼포먼스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어린이 4명이 직접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하며,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어른들과 함께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올해 대축제는 △즐거GO(올림픽 게임, 기차놀이, OX퀴즈, 카네이션 만들기 등) △꿈꾸GO(공룡을 찾아라, 팝아트 만들기, 나만의 악기 만들기 등) △웃GO(달고나게임,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등) △지키GO(친환경 가방꾸미기, 생태퀴즈카드, 모기퇴치 스프레이 등) △

체험GO(체험관 내 상설프로그램 등) △알아보GO(도내 기관 프로그램) △공연보GO(마술공연, 지브리&디즈니 콘서트, 태권도 시범공연 등) 등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7개 테마존, 총 75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북도가 유치 추진 중인 올림픽을 테마로 한 ‘미니 올림픽 체험(에어바운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 요소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호평을 받았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뛰놀고 꿈을 키워가는 전북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모든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정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행사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전 시설 안전점검 △안전요원 및 구급차 배치 △부스별 인원 제한 △우천 대비책 등 축제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이만호 기자

이재명, 장수서 경청 투어

(민주당 대선 후보)

천천면 오옥마을 청년 이장 만나 농촌 활력 모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6일 오후 장수를 찾아 지역 주민들과 만나 경청 투어에 나선 뒤, 천천면 오옥마을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농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후보는 숙박지인 오옥마을에서 전국 최연소 이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민수 씨(25)를 만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과 발전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정 씨는 주민 평균연령이 65세에 달

하는 오옥마을에서 2024년 이장으로 선출된 인물로, 정박기기를 활용한 방송 운영 등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20일 방송된 tvN 유재석 진행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농촌이 지속가능하게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와 새로운 시도가 중요하다”며 농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만호 기자 ·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